***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10. 22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전선 군포 연구소 전경** |
| **문의** | **주호찬 차장(010-8553-7904,**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차세대 심해 원유 이송 기술’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 참여**  **■ 딥오션·에퀴노르·토탈에너지스 등과 공동개발, 심해 유전 새 표준 제시**  **■ 장거리 히팅 케이블 단독 공급, 기술력&공급망 역량 인정**  **■ 가스·오일·방산 분야로 사업 확장, 해저케이블 기반 포트폴리오 다변화**  LS전선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해저 원유 이송 기술 개발에 나선다.  LS전선은 노르웨이의 딥오션(DeepOcean), 에퀴노르(Equinor), 아커BP(Aker BP),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등과 함께 ‘전기 가열식 해저 파이프라인(FlowHeat)’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외부 열선 방식이 아닌, 파이프라인 내부에 히팅 케이블(열선)을 삽입해 바닷속 저온에서도 원유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해 유전 개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히팅 케이블을 개발해 2028년부터 단독으로 양산, 공급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극저온과 고수압 등 극한 해양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증 시험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케이블 삽입식은 설치가 단순하고 효율이 높아, 비용을 약 35%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30% 줄이며, 시공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최대 수심 3,000m, 길이 30km 구간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소형 무인잠수정(ROV)을 활용해 케이블 구축이 가능하다.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딥오션이 총괄을 맡고, 에퀴노르·아커BP·토탈에너지스가 실증 파트너로 참여해 북해 등 심해 유전 현장에서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회사 측은 “이번 협력은 LS전선의 장거리 케이블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전력·통신 중심의 사업을 가스·오일 분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과 협력해 방산용 신호 케이블을 공급하는 등 해저케이블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에서 오일·가스까지 핵심 인프라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